

블록체인 기반 뉴스 미디어의 가능성

□ 한수연 / 블로터앤미디어

요약

블록체인이 화두다. 여러 산업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글에서는 미디어, 그중에서도 ‘뉴스 미디어’에 집중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널리즘적 상상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 서론

저널리즘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행위다. 저널리즘의 결과물인 뉴스 콘텐츠는 어느 콘텐츠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무엇보다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뉴스 콘텐츠의 생산은 ‘기자’가 맡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오늘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말이 클리셰인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했다. 탈진실화가 국지

적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특성이라는 진단이다. 이 진단을 방증하기라도 하듯, 같은 해 미국 대선을 전후로 ‘가짜뉴스’(Fake News)가 세계적인 논란으로 대두됐다. 가짜뉴스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은 채 온·오프라인에 만연하다.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다층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 독점 세력이 자리한다. 즉 다양성을 잠식하고 여론을 독점하는 거대 언론 구조와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콘텐츠의 유통 및 수익을 독점한 거대 IT 플랫폼 사업자가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위기에 빠진 저널리즘을 구할 수 있을까.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자.

II.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을 흔히 ‘신뢰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즉

중개인(middleman) 역할을 하는 제삼자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 간에 거래하고 그 정보를 함께 검증, 기록하는 시스템이다[1].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제3의 중개인이다. 믿을 만한 중개인을 중간에 세우고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제3자 없는 개인 간 거래는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분산원장기술은 암호화 기술로 공개된 원장에 거래 내역을 암호화해 기록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원장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각자 본인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네트워크망에서 표현하자면 <그림 1>과 같다.

왼쪽부터 각각 ‘중앙화’ 네트워크, ‘분산화’ 네트워크,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 탈중앙화 네트워크다. 분산화된 컴퓨팅 네트워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은 탈중앙화이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블록체인의 본질은 탈중앙화”라고 말했다. 2세대 블록체인으로 평가받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블록체인의 본질로 꼽은

탈중앙화를 좀 더 들여다보자. 탈중앙화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검열 저항성

검열 저항성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프로토콜에 의해 자동으로 거래 혹은 계약이 이행된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삼자가 없기 때문에 검열의 주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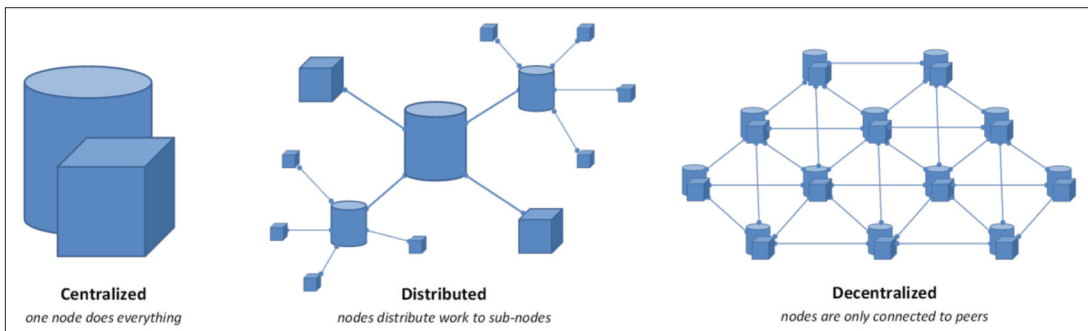
2. 기록의 비가역성

기록의 비가역성은 정보의 안전 보장을 뜻한다. 블록체인에 데이터(정보)가 한 번 담기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정보의 투명성

투명성은 모든 거래 내역이 개방 및 공유돼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자. 블록체인의 본질은 탈중앙화이고, 탈중앙화는 ▲검열 저항성 ▲비가역성 ▲투명성을 가진다.



<그림 1> 출처 : <https://www.delphitools.info/DWSH/>

III. 블록체인과 저널리즘

위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널리즘적 상
사력을 발휘한다면 어떨까. 탈중앙화의 세 가지 특
징을 저널리즘에 대입해보는 것에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먼저, 검열 저항성과 저널리즘의 궁합은 어떨까.
저널리즘에 있어 ‘검열 저항성’은 중요한 조건이
다. 현재 언론 활동에는 검열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다. 광고주로 대표되는 시장 권력, 정치
권력, 언론사주 등 다층적이다. 뉴스 콘텐츠의 유통
망을 쥐고 있는 거대 포털과 페이스북 등 IT 플
랫폼 사업자 역시 기자와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

삼자다. 취재·보도 활동이 이들로부터 검열 저항성
을 갖는 것은 저널리즘에 필요한 조건이다.

정보의 비가역성 및 투명성과 저널리즘의 궁합을
살펴보자. 검열 저항성과의 궁합처럼 좋지만은 않
다. 오히려 매우 위험한 조합일 수 있다. 비가역성
은 데이터의 ‘진본성’만을 보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본과 진실은 전혀 다른 문제다. 블록체인에 기록
되는 정보가 애초에 잘못된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를 수정(변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18년 4월 28일 오전, 한국의
한 개발자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therscan interface for a transaction. The transaction hash is 0xe4ee15d3f63db8464a649e3237ed83e930f9b3e40e842537a626745d1c96553c. The transaction is successful and has 551,759 block confirmations. The input data field contains the text: '0: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판문점 선언' (0: April 27, 2018, Korean Peninsula, Panmunjom Declaration). Below this, a list of items is shown, starting with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견인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1. The South and North will lead the driving and historic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hereby restoring the blood ties of the divided nation and paving the way for joint prosperity and autonomy.)

〈그림 2〉 이더리움에 기록된 한반도 판문점 선언

이로써 해당 선언은 사실상 해킹 및 수정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영원히 남게 됐다. 만약 판문점 선언이 아닌 가짜뉴스, 피해를 야기하는 정보가 담긴 뉴스, 악의적인 뉴스가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언론 활동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뉴스 콘텐츠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할 때 비가역성과 투명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IV. 블록체인과 저널리즘, 케이스 스터디

블록체인 기술로 저널리즘을 구현하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자.

1. 시빌(Civ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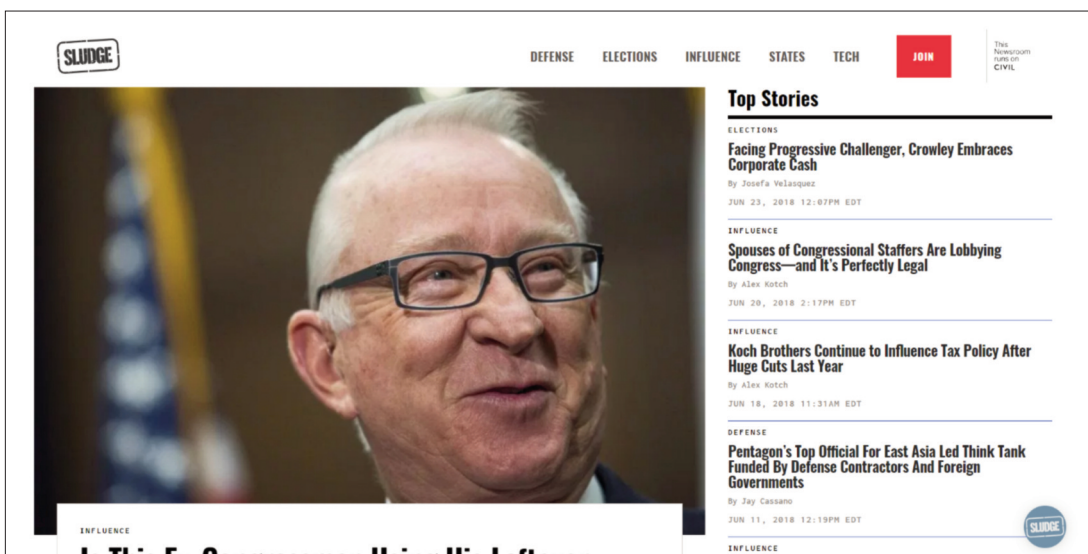
시빌은 ‘우리의 미션은 저널리즘’이라고 선언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2016년 말 미국에서 시작돼 2018년 6월 11일 이더리움 위에 ‘SLUDGE’와 ‘DOCUMENTED’ 등 두 개 뉴스를 출범시켰다.

시빌은 기존 뉴스 콘텐츠 생태계에서 ‘광고’라는 제삼자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뉴스 생태계를 목표로 한다. 수익 모델은 필연적으로 구독 및 펀딩이다. 기자와 독자가 오픈된 뉴스 시장에서 만나는 모델로,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언론 활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빌의 뉴스 시장은 ‘토큰경제’를 취한다. 뉴스 시장 참여자는 시빌 프로젝트의 자체 암호화폐 CVL 토큰으로 뉴스를 구독하고, 펀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 CVL로 주어진다.

토큰경제는 뉴스 생산 구조의 탈중앙화도 이룬다. 시빌에서 활동하는 개별 뉴스 집단을 ‘뉴스룸(News Room)’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뉴스룸이 시빌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를 CVL 토큰 보유자들이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토큰 큐레이티드



〈그림 3〉 2018년 6월 26일 sludge 첫 페이지 갈무리 (출처 : sludge 홈페이지)

레지스트리(TCR:Token Curated Registry)’ 모델을 차용해 토큰 보유자들이 투표를 통해 뉴스룸의 출범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퀄리티 저널리즘’을 위한 장치이자 뉴스룸 출범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탈중앙화 방식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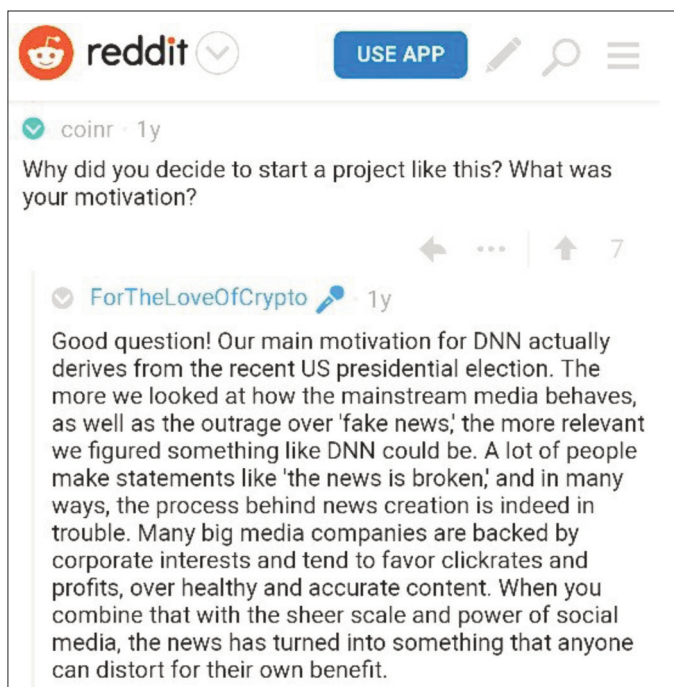
2. DNN

DNN 역시 미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다. DNN 팀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가짜뉴스가 판치는 모습과 거대 미디어 권력이 주도하는 편향된 보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레드잇(reddit)에 밝혔다.

때문에 DNN은 정치 뉴스에 집중해 사실에 기반한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SNS에서 만연한 필터버블을 붕괴시켰다는 것도 DNN이 내건 목표다.

DNN 역시 토큰경제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에 주목한다. 뉴스룸이 통과돼야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빌과 달리 DNN에는 누구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뉴스를 올릴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이란 뉴스 출고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을 뜻한다.

좀 더 들여다보자. DNN에는 4종류의 참여자가 있다. 리포터, 리뷰어, 독자 그리고 퍼블리셔다. 누구나 리포터로서 기사를 써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출고되는 것은 아니다. 출고 요청을 넣으면 임의로 지정된 익명의 리뷰어 7명의 검토를 거쳐 과반수의 ‘출고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리뷰어



〈그림 4〉 DNN 레드잇 페이지 갈무리. (출처 : https://www.reddit.com/r/ethereum/comments/6a8toc/we_are_decentralized_news_network_bringing/)

는 토큰경제 모델로 선정된다. 이들은 기사를 수정할 수 없고 출고 찬성/반대 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 리뷰어들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담합할 수 없다.

DNN이 흥미로운 점은 기사가 출고되는 방식을 탈중앙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언론사에서 리뷰어 역할을 하는 이는 데스크다. 데스크는 오랜 경력과 인사이트로 평가자에게 좋은 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나 감정적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최악의 경우 기사 출고를 막을 수도 있다. DNN은 출고 권한을 탈중앙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면 토큰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멀트라’ 프로젝트, 내쉬 균형 이론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내건 ‘트라이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현재 출범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프로젝트들이다. 때문에 백서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현실에서 출력할지 지켜봐야 한다. 백서에 설명된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위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먼저 시빌의 경우, 저널리즘 비즈니스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한다. 즉 유료 뉴스 콘텐츠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다. 한국 언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성공을 점치는 입장일지라도, ‘퀄리티 저널리즘’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퀄리티 저널리즘은 또한 일정 부분 ‘확장성’과 충돌한다. 퀄리티 저널리즘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뉴스 생산자로 참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허들(huddle)이 마련된다. 이 같은 방식이 결국 확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DNN의 경우, 속보성 및 단독성을 추구하는 뉴스의 생리와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주요 단독 기사를 쓴 기자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리뷰어에게 자신의

기사 출고 여부를 맡긴다는 것은 마뜩찮은 일이라.

V. 블록체인 미디어 안에 담기는 뉴스 콘텐츠

블록체인 기반 저널리즘을 상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뉴스 콘텐츠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의 한 종류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즉 블록체인과 미디어의 가능성을 점치고, 이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에 담길 한 종류의 콘텐츠로서 뉴스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오늘날 콘텐츠 유통 시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군림하는 가운데 형성돼 있다. 이 구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콘텐츠 생산자가 플랫폼 사업자에 수익을 의존하게 하고,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한다.

최근 이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을 한 유통 구조를 재편하려는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티밋(Steemit)’이다. 스티밋은 토큰경제를 기반으로 콘텐츠 생산자 및 큐레이터에서 ‘보상’을 제공한다. 페이스북, 레딧, 브런치, 네이버 블로그 등 우리가 흔히 쓰는 SNS 및 블로그 플랫폼을 생각해보자. 사용자들이 시간과 노력, 재능을 쏟아 콘텐츠를 생산해도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사용자와 교류하며 플랫폼을 키우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플랫폼 사업자와 초기 투자 주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스티밋은 다르다. 스티밋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는 보상이 따른다. 보상에는 크게 저자 보상과 큐레이션 보상, 두 종류가 있다. 저자 보상은 말 그대로 스티밋에 글을 올려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인정

을 받아 페이스북의 ‘좋아요’에 해당하는 ‘업보팅’을 받으면 획득할 수 있다. 큐레이션 보상은 스티밋에 올라온 좋은 글에 업보팅을 하거나 공유하기(스티밋에서는 ‘리스팅’이라고 한다)를 해 다른 사용자에게 많이 노출되도록 하면 받는 보상이다.

이같은 방식은 콘텐츠 생산 및 유통, 그에 따른 보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스티밋 초기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가 다수였지만, 점차 콘텐츠 카테고리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뉴스 콘텐츠 역시 스티밋에 등장했다.

스티밋은 잘 설계된 모범 ‘토큰경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다. 토큰경제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도록 우연성을 관리하는 설계를 뜻한다. 스티밋은 ▲스팀 ▲스팀파워 ▲스팀달러 등 세 종류의 암호화폐로 설계된 토큰경제로 사용자가 토큰 보유 기간을 적절하게 유지하면 서도 스티밋 내 영향력에 대한 욕구를 방생시킨다.

잘 설계된 토큰경제 위에 뉴스 콘텐츠를 올리면, 현재 독점적인 콘텐츠 생산, 유통 시장을 깨고 새로

운 뉴스 콘텐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VI. 결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널리즘적 상상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번째, 블록체인 기반 뉴스 미디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텐츠 생산자로 참여자의 확장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유료 뉴스 콘텐츠 시장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도들은 유의미한 시도이며, 현재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한 종류로 뉴스 콘텐츠를 상상하는 구조다. 이 경우 토큰경제 모델에 따른 수익이 기존 뉴스 수익 구조를 대체할 수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역시 실제적 시도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점쳐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블록체인 이상과 현실, 어디쯤 와 있나, 한화투자증권, 2018.5
- [2] The Civil White Paper, Matthew Iles, 2018.5
- [3] Decentralized News Network White Paper, Samit Singh and Dondrey Taylor, 2017.1

필자 소개



한수연

- 2015년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국제학 학사
- 2015년 ~ 2016년 : 포커스뉴스 취재 기자
- 2017년 ~ 현재 : 블로터앤미디어 취재 기자
- 주관심분야 : 블록체인, 저널리즘, 우주(space)